

제주 가시리 마을 만들기 사례를 통한 한국형 마을만들기 연구*

이 자 원**

The Case Study of Gasiri Community Development to Make Korean Model for a Good Community*

Jawon Lee**

요약 : 20세기 후반 대두된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천은 지역 개발 원리의 전환을 통해 시작되었다. 산업화 이후 기능과 합리를 중시하며 대규모 도시계획과 표준화된 토지이용에 주목하던 개발 정책은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목표로 한 대안적 원리, 즉 뉴어바니즘, 어반빌리지, 마을만들기 등을 선택하며 삶의 질과 장소적 가치의 보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도시와 농촌의 많은 지역이 마을만들기를 중심적인 지역 개발 사업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모호하다. 제주도 가시리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오랜 기간 주민 운동 방식으로 건강한 마을을 구축한 사례로 파악이 된다. 전략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지역의 콘텐츠 개발은 핵심 전략이 된다.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주민의 참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발 전략은 지속적인 지역 성장 구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민 생활의 질적 개선으로 인하여 인구유지 및 지역 어메니티 증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마을만들기, 대안적 도시계획 원리, 리더십, 주민의 참여, 지속적인 성장 구조

Abstract : The execution of sustainable growth that blossomed in late 20th century through a transition in the regional plan principal. In the wake of the period of industrializati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urban planning and standard land use -with emphasis on skill and logic- hoped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through alternative principal, which encompasses new urbanism, urban village, community development, and focuses on quality of life and conservation of spatial value. Since 1995, Korea has adopted various community growth projects as its important facet to its regional development plan, although the assessment of such subsequent outcome has been obscure.

Community development plan in Jeju's Gasiri community was engineered through adequately applying its regional specificity and has become an exemplary case of making a good community through an elongated municipal social movement. Development of contents is a key approach to achieve tactical community development. In order to maximize the regional economic value through its regional specificity base, the equilibrium between leadership and resident-participation is critical. The software aspect of development strategy will have influence on the progression of sustainable regional environment; furthermore, population sustenance and extension of regional amenity can be anticipated through improvement upon quality of life.

Key Words : community development, alternative urban planning principal, leadership, residents' participation, sustainable growth structure

*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2013년 후기(2013-2-11-022/1)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 of Geography, Sungshin Women's Univ.), jw1109@sungshin.ac.kr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는 삶의 질보다는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집중된 힘을 한 곳에 투자하면서 효율적인 개발을 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토 공간은 집중된 힘이 모아진 서울대도시권과, 그 밖의 지역으로 양분되는 극심한 지역 불균형을 경험하였다. 도시로의 집중과 대규모 계획 전략에 의한 지역 편중은 비도시지역의 인구 유출에 따른 마을 공동화와 인구구조의 극심한 왜곡을 가중시켰다.

산업화 과정 중 도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방식은 고층화와 표준화에 집중된 기능적 공간 확장이었다. 도시는 자본 축적과 경제 성장의 수단이 되고, 차로는 대로 형태로 점점 확장되는 대신 보행자 통로는 상대적으로 좁혀 지는 등 인간 척도의 삶의 공간과는 무관하게 변질되었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대량생산과 소비, 유통 활동은 개별 지역의 자원, 인력, 방식 등을 끌어 모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역 내 순환 체계를 단절시켰다. 고도의 경제 선진화와 도시화를 경험한 영국, 일본, 미국 등은 산업화 과정에서 낙후된 지역의 재생과 대도시의 삶의 환경을 복원하려는 차원에서 경제·사회·환경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의미인 지속가능한 개발과 성장을 정책화하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 사고는 어반빌리지, 압축도시, 뉴어바니즘, 마츠쿠리 등의 대안적 계획을 형성시켰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함께 각 지역의 성장 전략으로 본격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되었다.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 정비와 삶의 질적 환경을 향상시키고, 지역 전통과 환경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 마을만들기의 본질적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설정되어, 주민운동의 성과로 마을이 구축되어야 근본적 취지에 부합하는 마을이 구축될 것이다.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많은 지역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해 왔지만, 아직 각 사례에 대한 평가는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도의 가시리 마을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기초

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인구기반 및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미개발지로 낙후되었다. 지속적으로 청장년층의 노동 인구가 빠져나가고, 고령화 인구만 남아 성장의 여지가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오피니언리더(이장)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은 지역활성화를 위해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의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의 특성을 최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마을 재생을 시도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노후하고 쇠퇴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통계 자료조차 매우 미비한 실정이지만,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노력으로 기존의 형식화된 마을만들기와 차별된 ‘가시리 마을 재생’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지역개발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제주도 가시리 마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사례로 우리나라형 마을만들기의 원리 구축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마을만들기의 이론적 동향

1. 도시 개발에 관한 관점의 변화

모더니즘의 조류와 함께 합리와 기능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산업화를 택한 많은 국가와 도시는 시장과 공공을 평등한 경제 사회의 축으로 발전을 모색했으나, 19세기 후반부터 공익과 시장은 균형을 잃고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양식과 기대를 수용하지 못한 채 주택문제, 주거환경 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를 양산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미 19세기 후반 하워드(1898) 등 사회주의적 성향의 도시계획가들은 적정인구규모와 다양한 기능의 배치 등을 통해 삶의 공간으로써 도시를 구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20세기 초반 르포르비제 등 도시 연구가들은 도시민이 살고 일하고 위락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도시 개발을 선도하였다(이자원, 2014; 2015). 19세기와 20세기 초의 합리와 기능을 축으로 한 도시계획의 원리는 20세기 후반 도시 문제를 환경적 관점에서 해소하는데 합의하면서 적정인구 규모와 지역 전통 계승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이자원, 2014). 도시를 포함한 각 지역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살고 싶은 곳’을 위한 지역개발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고, ‘자본’이라는 주체 대신 주민의 인간적이고 생태적인 삶을 위한 도시계획 방식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21세기에 이르러서는 하비(2008), 소자(2010) 등에 의해 도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공적 공간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사회화된 도시 공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 국가적 차원에서 혹은 세계화 관점에서 각 지역별 공적 공간이 네트워크화되어 전 지구적으로 최대한의 기회평등과 실질적 기회의 지속가능한 극대화를 추구해야한다는 논리가 공간정의(spatial justice)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Soja E., 2010).

이러한 조류는 도시 개발과 관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국가 발전의 구심적 공간으로 우선적으로 개발되었던 도시는 일터와 침상적 기능을 제공했을 뿐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미흡하였음을 인식하였고, 주민이 살고 일하고 건강하게 쉬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 하고자 하는 의도가 계획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도시가 사유재산의 증식 공간 역할을 함에 따라 빚어진 자본의 차등 분배와 이에 따른 국토의 불균등화를 지양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삶의 공간으로의 전환과 균질적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여러 사회학자와 도시 연구자들의 논의를 토대로 적정인구규모와 자립적 생활양식 구성을 계획의 목표로 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의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 미국식 뉴어바니즘, 일본의 마치즈쿠리가 그 예이며,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지방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마을만들기라는 명칭으로 도시를 포함한 소단위 지역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정주 형태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계획 사조

미국의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은 미국식 교외화에 의한 공공공간과 커뮤니티의 붕괴를 비판하

면서 자동차에 의해 밀려나 버린 보행자 공간과 포티즘적 회색 공간에서 지역성의 요소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참여 건축 등을 통해 지역과 생태를 재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사항 중 하나가 어떻게 주민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가이다. 20세기 도시개발과정에서는 시장의 방식대로 수요자들이 자신의 경제력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다양한 가격 형태를 제공하는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개발자가 아닌 도시연구가¹⁾의 관점에서라면 대중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기 위하여 지침을 설정하고 주민의 합의를 도출하여 과도하지 않은 방법을 개발하는데 주력하였을 것이다. 20세기 동안 도시화 과정에서 피폐된 환경을 새롭게 보정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설득력과 호소력을 지닌 도시 현장²⁾들이 발표되었던 것도 한 사회와 집단이 지향해야하는 가치의 기본적인 준칙을 설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개발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였다고 판단된다. 이 중 뉴어바니즘 현장은 기존의 여러개 현장들이 다소 산만하고 개별적인 운동에 그친데 반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도시설계의 기준과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역사적인 양식과 건축 형태를 중시하고, 건축형태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며, 소규모 개발을 우선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로체계를 재구축하며 커뮤니티의 공공성 중시 등을 강조하면서 이전의 현장들과 차별된다. 스마트 성장이라는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는데, 개발되지 않은 자연의 최대한 보존, 주정부의 자원을 동원한 근린지구보전책 강구, 부적합한 토지이용의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긍정적 토지이용 상호간의 상생효과 최대화,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위한 건설비용의 최소화, 사회적 형평성의 극대화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설계지향적인 뉴어바니즘의 계획 사조로 옮겨 인간 척도를 지닌 근린주구 중심의 지역 개발 방식을 계몽하고 있다. 이에 영향을 준 계획 설계사조는 하워드의 전원도시, 페리의 근린주구론, 도시미화 운동 등이 있고, 이를 기초로 두아니(Duany A., 1992)는 모든 커뮤니티는 주택 이외에도

표 1. 계획 사상과 정주 형태 개선을 위한 설계 원리

계획 사상	설계원리	국가
하워드의 전원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토지이용과 풍부한 공공용지 • 대중교통 중심, 지역내부 길드삭 구조로 통과차량 배제 • 도시주변을 환상형태의 녹지 구성으로 도시확산 방지 • 인간 척도 규모의 자족적 도시설계 	영국
페리의 근린주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보권을 원칙으로한 기초생활권적 계획단위 • 물적 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적 커뮤니티 형성 	미국
도시미화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과 주변환경과의 조화 • 커뮤니티 센터와 공동체 의식 	미국 등
뉴어바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로가 중심이된 대중교통 중심계획 및 차량사용 최소화 • 복합적인 토지이용 • 다양한 주택 유형의 혼합 • 고밀도 개발과 도시단면 구조상 녹지대로 연결 • 건축 및 도시설계 코드 활용 	미국, 캐나다
어반빌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척도의 살고 싶은 도시환경계획(livable environment) • 지역 특성이 반영된 고품위 디자인과 잘 계획된 기반시설 • 사회 다양성과 다양한 주택유형의 공급 •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개발과 유지관리 • 복합적 토지이용 및 융통성 있는 건물계획 	영국
마치즈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대 고도성장에 따른 주민저항운동의 수용 • 1970년 이후 전통 건물 등 역사보전, 마을 보전 운동 정착 • 1980년대 주거지 정비, 지구계획 등에 주민참여 	일본

상점, 직장, 학교, 공원, 공공시설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지녀야하고, 대부분의 시설은 도보권에 설치되어야 하며, 다양한 사회계층과 연령층의 주민이 공존할 수 있고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자연환경의 보전에 우선점을 두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뉴어바니즘의 원칙을 정의하였다. 뉴어바니즘의 원칙에 따라 설계된 플로리다의 Seaside, Celebration 등 여러 사례가 있는데, 초기 프로젝트가 대중 교통과 연계되지 않은 교외지역 혹은 휴양도시 개발에 적용되어 신전통적주의라는 뉴어바니즘의 사고에 어긋나고 오히려 도시 확장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Bressi, 1994, 원제무, 2008에서 재인용), 낭만적 회귀 등의 비현실적인 이상적 계획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뉴어바니즘의 다양성, 압축성, 복합 용도적 구성(mixed-up use), 보행자 중심 체계, 생태적 원활한 통행(transit friendly), 합리적인 주택 유형의 보급(affordable housing), 빈곤의 분산(deconcentration of poverty),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핵심개념은 유형적 운동으로서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어반빌리지(urban village)는 1989년 영국에서 시

작된 도시환경 운동이다. 인간적인 척도의 쾌적성이 강조된 도시적 마을 만들기 개념으로, 기존의 개발 방식의 폐해를 방지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과 도보권내 초등학교 및 공공시설과 편의시설 배치, 융통적인 건조물 계획, 보행자 우선 계획, 적정인구규모의 개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품위 마을 디자인, 다양한 주택유형 공급 등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한 설계 원리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기존도시와의 연계된 개발에 주목함으로써 교외지역의 녹지개발 보다는 기성 시가지의 재개발 및 재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어반빌리지의 한 모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매트릭스(sustainable urban matrix) 개발이 있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지구에서 사회적 공간적으로 커뮤니티를 연계시키는 통합적인 공간 계획 개념이다.

그림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4층으로 구성된 아파트 4동을 묶어 하나의 군으로 묶고, 또다른 세 개의 군과 묶어 하나의 밀접한 커뮤니티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4개의 커뮤니티 그룹을 묶어 하나의 어반빌리지로 모형화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 매트릭스 개념인데 영국의 그린위치 밀레니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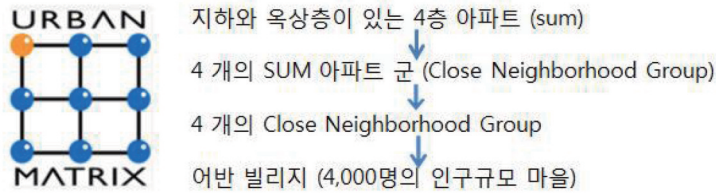


그림 1. 지속가능한 어반 매트릭스 모형

출처: Hall K., and Porterfield G., 2001, *Community by Design*, McGraw Hill, 원제무, 2008, 마음으로 읽는 도시, 조경, p.239에서 재인용.
 주: 위 문헌을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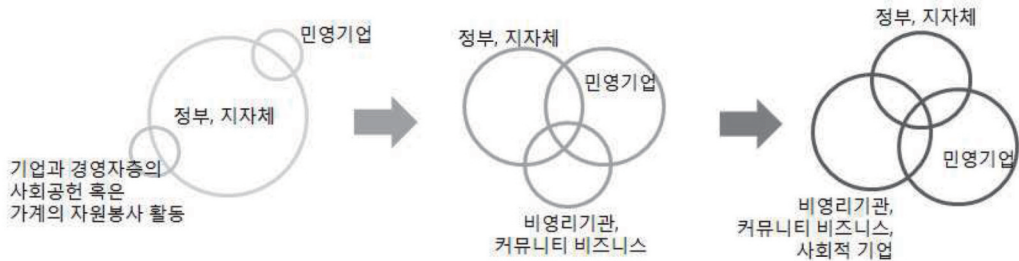


그림 2. 마치즈쿠리의 주체와 관여 형태의 변화

주: 이사 아쓰시 등, 2006, 최선주 등 옮김,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커뮤니티 비즈니스편), 한울아카데미, pp.12-15의 내용을 기초로 재작성

빌리지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매트릭스 개념을 도입한 어반빌리지 모형은 고품질의 도시 내외부 공간 디자인을 특성으로, 사회적으로 교류와 활력이 있는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고 장소성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을 고취시키는 계획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도보의 확충과 개선 및 정주 형태의 질적 구조가 가장 핵심적인 계획요소가 되고, 대중교통체계가 이를 지원하는 설계 원리로 분석된다. 전통적 가치의 존중과 미래 지향적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생활 패턴에 결합시킨 구체적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어반빌리지의 개념과 사례에 관해서도 논의가 다양한데,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전통적 전원도시 생활과 낭만주의적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를 추구하는 과거지향적이라고 평가하는데 반면, 주민참여의 효과와 가능성은 부정적이라는 지적도 제시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활발한 이동성이 커뮤니티의 유대감과 소속감 형성을 여전히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비교적 일찍이, 1970년대부터 마치즈쿠리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활성화와 경제 부흥을 위한 시민사업 형태의 지역 재생 운동 정착시켰다. 정부

가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지역 과제들에 대해 새롭게 형성된 거버넌스가 주민의 참여와, 주변과의 활발한 네트워킹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1960년대 경제성장과 효율만을 고려한 고도성장에 의해 지역 환경의 악화를 경험한 주민들은 전통 건물 등 역사물의 보전과 마을의 유지를 위해 지역 문제에 천착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 이후에는 주거지 정비와 지구계획 등에까지 참여하는 성과를 보였다(마쓰오 다다스 등, 진영환 등 옮김, 2006). 마치즈쿠리 사업은 시민의 참여와 리더십, 자립과 파트너십, 그리고 자치단체의 지원 체계로 구성이 되어 지역 커뮤니티의 가치와 잠재성을 최대화하고 일상생활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내지는 쇠퇴한 지역의 회생을 이루어낸 사례로 평가된다. 통계적 수치로 볼 수 있는 경제 성장이 아닌, 지역 주민이 진정한 풍요를 느낄 수 있는 자립력의 향상이라는 점이 마치즈쿠리를 통해 얻은 성과인데, 이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큰 역할을 하였다. 자율적으로 자립적 지역 생태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 활성화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현재 일본에서는 ‘작은정부화’와 ‘시장원리의 활용’

표 2. 지역활성도 개념

	시민조직(NPO, NGO, 커뮤니티 비즈니스, 생활협동조합, 지역단위 주민자치조직, 자치회 등의 지역에 대한 관여도(활동의 질과 양))
	X
지역활성도 =	민간기업(지역산업이나 유치기업, 중소기업, 혁신기업 및 신산업 등)의 활력도 및 지역에 대한 관여도(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투자의 질과 양)
	X
	지방의회 · 지자체의 경영능력

주: 그림 2와 같음.

으로 보다 안정적인 재정적 수익과 자립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시민의식과 재정 등의 경제 환경 변화는 공공 영역으로써의 지역만들기 주체와 관여 형태에도 영향을 주는데, 산업화 기간 동안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담당하던 공공영역에 대한 정책적 구조는 그 범위가 축소되고, 오히려 민간과 비영리 단체 혹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사회적 기업이 그 부분을 대신하게 되면서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그림 2).

시민 의식이 높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조직과 협업하면서 기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는 것을 지역 활성도의 견해로 이해할 수 있다(표 2).

마치즈쿠리 사업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한 경제 성장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는 충분히 기능하

지 못하는데 대한 주민 스스로의 대응으로, 40여년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실험적 개발과 실행 운영 등을 반복하면서 자율적 지역 재생을 이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역마다 상이한 주제와 목표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지역의 역사적 경관을 보전하고, 자연과 공생하며, 모방이 아닌 지역의 개성을 살린 마을을 회복하고 전문가와 행정 등 체제 관리와 유지에 있어 파트너십을 조직하여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의 실행을 이루고 있는 점 등이 시사적이다.

III. 가시리 마을 사례 연구

1. 가시리 마을의 지리적 배경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빚어진 무질서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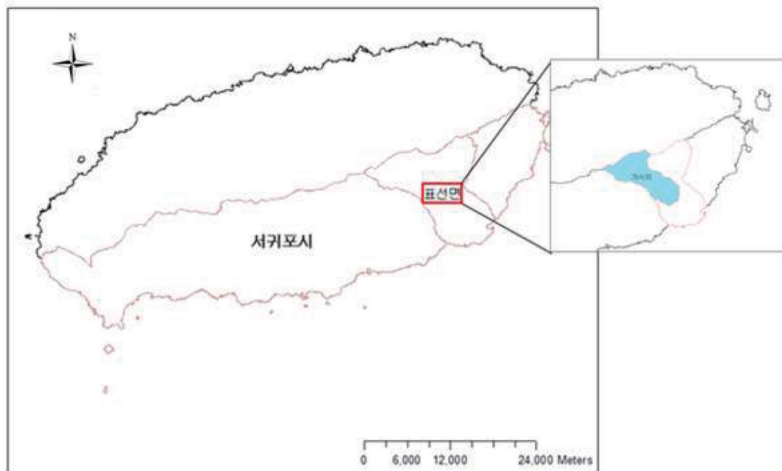


그림 3. 가시리 마을의 위치

확산과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도시성장은 도시민의 삶의 공간에는 부작용이 되기도 했다. 이에 도시화를 경험한 많은 도시들이 거주환경을 중심으로 도시의 지역성과 삶의 질 향상에 주목하며 재생과 다른 형태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산업화에 의해 삶의 공간의 정체성이 파괴되었거나, 산업화에 의한 도시화에서 벗어나 오랜 기간 침체되었거나 쇠퇴하고 있는 지역들이 여러 가지 노력으로 지역의 재활성화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 제주도 가시리는 지역리더와 주민, 전문가인 중간조직자들이 구도를 이루고 우리 나라형 ‘마을만들기’ 사례를 보여준 곳이라 판단되고 가시리 마을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가시리는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의 42% 면적을 차지하는데, 전체 494 가구, 1,163명으로 구성되어 인구는 10% 정도에 머무는 지역이다. 가세오름의 북쪽, 설오름의 남쪽, 갑선이오름의 서쪽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안좌천이 흐른다. 고려시대 개국에 불복한 한천이 유배되면서 가시리에 정착하여 ‘가시오름’이라 칭하고, 마을을 만든 기원이 기록에 남아있다. 17세기 말 탐라도의 상악촌(橡岳村)이라 명칭된 이후, 18세기 중반까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상악촌이라는 지명으로 표기되었으나 18세기 말 「제주읍지」의 호구총수 조사록에는 가시악리로 표기되어 있다. 19세기 들어와 가시악리가 가시리(加時里)로 표기된 이후 현재까지 지명으로 남아있다(가시리지, 1988).

1945년 광복 이후 약 6만명에 이르는 귀환 인구의 실직난, 생필품 부족, 전염병의 만연과 흉년 및 미곡정책의 실패 등 해방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일제강점기의 경찰출신들이 미군정 경찰이 되어 여러 가지 사회 반감을 일으키는 등 국민의 불만은 고조에 달하고,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 활동 등이 대립하면서 정치 사회적으로도 매우 불안하였다. 1947년 3.1절 기념식 때 제주도에서 시민이 경찰의 말발굽에 치이는 사건이 발단이 되어 서로 다른 정치 이념의 큰 충돌로 이어지고, 결국 1948년 4월 3일 제주도 대학살 사건을 빚게 된다. 제주도의 고립된 지형적 요인으로 강경 토벌작전은 빠른 시간 진행되었고, 4.3사건이 발생하고 4개월 동안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방화되고 마을 주민은 해안가로 강제 이주되어 삶터를 잃었으며, 30만명의 도민 중 3만명 가량의 학살 피해를 냈다. 이 중 가장 큰 피해 지역 중 하나가 가시리로 당시 마을이 전소되고, 주민 50%가 학살되었다. 1949년 사태가 진압되고 주민들이 복귀하기는 하나 거주하면서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962년 정부의 지원으로 문화촌이 형성되어 이주처가 공급되기는 하였지만, 4.3사태 이후 많은 주민이 사상하거나 흩어져 다시 마을을 회복하기는 매우 열악했다. 가시리 마을 동쪽의 하천변에는 수명이 수백년된 구실잣밤나무가 있고 거대한 뿌리가 뻗어나 있다. 가시리 마을 주민은 이곳에 신당을 형성하여 4.3사태를 기리고 있다. 또한 가시리 마을 안쪽에 있는 애기무덤 역시 4.3사태 때 희생된 어린아이들의 묘로, 가시리 마을 개발사업 시에도 허물지 않고 게스트하우스 마당 옆에 보존하고 있다(표선면, 2009).

가시리 마을의 산업은 역사적으로 목축업이 주를 이루었는데, 조선 숙종 이후 목장을 짓고 돌담을 쌓아 잣성을 형성하는 등 목장이 운영되어 왔다. 4.3사태로 마을은 전소했지만 잣성의 일부가 남아 현재 가장 긴 선형(線形) 유적지로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역시 숙종때 지어진 산마장(山馬場)인 ‘녹산장’은 1894년 갑오개혁 당시 공마제의 폐지에 따라 폐장되었다가 1930년 가시리 마을 공동목장으로 재설되었는데 한 때 주민들에 의해 개간이 되어 경작을 했던 흔적도 있다. 현재는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녹산장 터의 주변에 도보로를 설치하여 여행자들의 산책로로 개발하였다.

2. 가시리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부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7년까지 선정사업의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산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어메니티를 증진하기 위한 지역개발 정책이다. 이는 2006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이 도시의 과밀문제와 농촌의 공동화 해결에 균형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

표 3. 가시리 마을 신문화공간조성사업 구성

<p>문화기반 마을만들기</p> <p style="text-align: center;">↓</p> <p>주민이 주체가 된 문화공간의 현실화</p>	<p>하드웨어: 마을 주민의 커뮤니티 센터</p> <p>역사 유산 보전과 장소 정비 및 지형을 활용한 보행로 개발</p> <p>목장을 주제로 한 문화공간 건축 및 지역 경관 정비</p> <p>유채꽃밭의 개간과 확충을 통한 수확 작물 생산화</p> <p>신 문화시설 구축</p>
	<p>소프트웨어: 주민들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기반 구축 기획</p> <p>주민들의 아이디어 수렴과 의견 참여 등을 이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p> <p>역사 유산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및 관광자원화</p> <p>목장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수익 확충 기반 마련</p> <p>농작물의 생산확대와 상품화 기획</p>
	<p>휴먼웨어: 일괄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p> <p>주민들의 인식증대로 인한 자율적 리더십 개발과 프로젝트 참여 운영</p> <p>사업운영을 위한 자치조직 형성 및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 관리</p> <p>중간조직의 연계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과 디자인</p> <p>전문가의 연구 및 자문과 주민과의 파트너십</p>

주: 가시리, 2009, 가시리 신문화공간조성사업 기본계획, 가시리 신문화 공간조성 사업추진위원회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

락이라고 볼 수 있다.

가시리 마을은 2009년 선정대상이 되어, ‘신문화 공간조성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시리 마을은 기초생활 환경정비, 공동 소득기반 확충, 그리고 이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관개선을 목표로 가시리 마을 지역 고유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잠재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가시리 마을이 선택한 지역 개발 요소는 ‘문화’로써, 문화환경 구축을 통해 주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치를 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민 스스로 이 지역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하고, 주민 주체의 문화 활동이 기반산업이 되어 지속가능한 경제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를 위하여 마을을 정비하여 문화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하드웨어 측면의 건설사업이 필요하였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마을을 만들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이 정립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고, 시행할 수 있는 리더와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투입되어야 하는 인적 자원도 필수적이었다. 가시리 마을 만들기 사업을 기획에는 이 마을의 40대 연령 이상의 추진력이 큰 영향을 주었다. 4.3사태 이후 급격히 쇠락한 마을이 한국전쟁을 겪은 후 60여년간 자립 갱생의 여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대부분의 노동력 인구는 도시로 이출하였고, 지역내에는 생산 기반이 소멸된 1,000여명의 인구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연령층으로 구성된 생활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역이었다. 농림부의 농촌개발사업 공모에 따라 이장과 마을 주민들은 목장과 유채꽃밭 등의 소량 자원을 근거로 마을 재생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일본 등 마을만들기 관련 여러 사례를 찾아 분석하고 주민대표자치단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서귀포시를 통해 계획 수립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 단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신문화공간



사진 1. 이장의 사업설명 보고와 공청회



사진 3. 목마장 재개발과 관광지원화



사진 2. 지형을 활용한 계획 및 친환경에너지 이용



사진 4. 유채의 농경과 산업화

조성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후 연구와 자문을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프로젝트 매니저 등 중간조직을 영입하여 사업추진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대표자 회의를 통해 운영 법인에게 위탁을 주어 문화 공간, 프로그램 기획, 수익사업 개발 운영을 디자인하였다. 지속적으로 주민 자치회의 전문가와의 논의 및 결정을 통해 가시리 마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신문화 공간 조성사업 초기에 부녀회, 노인회, 개발위원회 등 마을의 조직을 사업별 특성에 맞게 분리 조직하였고, '가시리 유채꽃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통해 유채꽃의 생산성 확충과 상품화 계획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매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일본 등지를 견학하

며 유채꽃 생산물의 상품화 전략을 구상하고, 청소년 문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어렸을 때부터 마을에 대한 소속감 및 사회 결속력을 몸에 익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에 대한 결속감 증진과 마을에 대한 관심은 인구유지와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가시리 마을의 가장 상징적이고 마을 주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폭 넓은 개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마을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공동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개성적 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경관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의 실천과 함께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이 늘 머물며 일상처럼 소통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의 자존감이 향상됨은 물론 시민의식 또한 고양되어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마을의 지킴이로서의 책무를 가지고 사업의 실천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은 하드웨어 조성을 마치고 프로그램의 시험 운영기로서, 제주 목축박물관과 문화센터를 조성하였고, 이를 목축문화축제와 백증제 등 마을 축제로 연계시켰다. 특히 문화센터는 기존의 커뮤니티 센터를 확장하여 사람이 많은 기간은 전관을 개장하고, 방문객이 적은 계절은 적절한 규모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한 유연한 구조의 건축물로 에너지 절감과 스마트한 활용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이다. 마을 디자인하우스를 조성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전시하고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꾸준히 주민 교육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지속적인 운영을 실천하고 있다.

2011년은 본격적인 운영기로 주민의 자치 프로그램 참여와 운영은 물론, 외지인의 관광을 유도하여 수익을 증대시켰다. 목축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특징을 유목민의 이미지로 연결시켜 유목민의 전형적인 주거형태인 게르 모양의 게스트하우스를 건축하였고, 목장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물 게시 등 실질적 수익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다. 더 많은 문화요소 개발을 위해 문화학교 운영을 통해 다양한 문화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교육(영화, 방송, 마을신문만들기, 제주 토속어 보전과 알리기, 목축 캠프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다

음세대 지역 문화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매년 진화되는 문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어린이회, 학부모회 등을 대상으로 전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룹형 맞춤형 교육을 실행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개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2012년에는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농산어촌분야 최우수 경관대상을 수상했고, 2014년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전국 컨테스트 대회에서 문화복지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국농촌건축대전 준공건축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가시리 마을은 매년 마을달력 제작 및 배부, 마을신문 발간, 게르 등 특이한 목축 경관을 활용한 레지던스 사업, 사계절 축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편익하고 청결한 마을 시설 개선을 중점사업으로 방문객의 수요 증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행사와 문



그림 4. 가시리 인구의 변화, 1995-2014

주: 서귀포시청 (<http://www.seogwipo.go.kr/>) 2015년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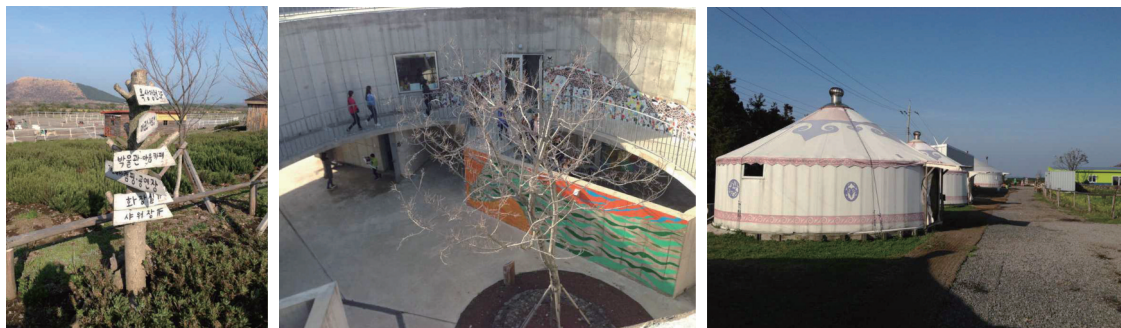


사진 5. 지역성을 최대한 활용한 디자인 전략

화사업의 수익 중 일부를 자연환경 보존과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환수하여 재투자하는 운영방식을 실천하고 있다. 실제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 지역이었던 가시리의 인구가 2010년을 전후로 안정되었다 2014년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최근 제주도에 대한 투자와 인구 이입이 높아진데 따른데 영향이 있겠지만, 전년 대비 3.5%의 증가를 보여 서귀포 전체 인구 증가인 2.5%를 상회함으로써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그림 4).

제주도 가시리 마을만들기는 현재까지 지역 재생과 쇠퇴한 농촌 개발 및 부흥을 보여준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사업의 실행 후 현재까지 꾸준히 마을 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던 요소는 정체된 농촌에 활력을 제공한 강한 추진력의 리더십, 수익 증대와 생활 환경의 질적 개선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른 주민의 자발적 협의와 참여, 중간조직 등 전문가와 프로젝트 매니저 및 관련 지자체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안정된 수익성의 보장과 지속적인 개발 의지와 노력 등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더욱이 사업 주체로 전 주민의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찾아 참여하고 있는 점과, 어린이와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사회적 결속력을 이루고 있다는 점, 수익을 통해 경제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 실천하는 리더십과 청렴하게 이끄는 리더십의 공생 등이 잠재된 자원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시키고 있다는 점 등은 우리나라형 마을만들기 원리를 형성시키는데 큰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농촌과 도시의 균형적 개발, 삶의 질이 새로운 성장과 경쟁력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을 혹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각 지역별 과제가 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의 산업화를 경험한 대도시부터 산업화 과정 중 상대적으로 침체된 농어촌까지 생활 환경의 질적 개선과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6년도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추진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중앙정부와 시범지역 공모사업 등의 기존 행정 방식을 답습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지역사회와 주민이 주체가 된 거버넌스의 성과는 파악하기 힘들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우리나라 지역 만들기를 제도적 차원과 실천 운동적 차원에서 실태 분석(2007)을 한 결과, 현재의 정책으로는 자치적인 마을 만들기의 실행에 한계가 있고,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에 지역 주민의 지역에 대한 전문성과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마을을 만드는 데 주민은 필수적인 주체이고, 이들의 의견이 수용되어야 주민들이 살고 싶은 또는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이다.

제주도 가시리의 마을만들기는 약 5년의 기간 동안 지역재생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사례 연구의 가치가 큰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가시리 마을만들기의 과정과 요인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농촌 마을의 건강한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필요한 원리와 요소가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첫째는 농촌이 지니는 지역성이 리더십에 의한 주민의 관심과 기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과 주민에 대한 애정이 강한 리더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추진력 있게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침체되어 있던 농촌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생활의 개선과 경제적 수익 구조에 대한 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방식이 주민과 소통되어야 주민의 긍정적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주민의 시민의식 증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잠재된 자원의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상품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공공의식과 책임관의 형성 등을 위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식 등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파트너십이다. 관련된 지자체의 협력과 경험있는 유기관들의 공조에 의해 전문가 집단과 프

로젝트 매니저 및 주민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줄 수 있는 중간조직(디자이너)들이 모여 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 콘텐츠를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네 번째는 경제적 안정성 구축이다. 제주도 가시리와 같이 가시리 마을의 목축업과 유채꽃밭 작물 수확 등을 기반으로 1차 산업의 의미를 뛰어넘어 이를 상품화하고 서비스업화 하여 수익구조를 형성시키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4.3사태와 같은 비운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유적지, 즉 애기무덤, 신당 등을 교육적 문화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마을 사업들은 지역기업 혹은 사회적기업 형태로 유지하여 전 주민에게 고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구조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유년층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지역성 고양, 사회적 결속력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인구의 유지를 통해 지역이 장소적 질과 생활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註

- 1) 도시연구가: urbanist는 19세기 후반 이후 산업화와 무질서하게 확장되는 도시화를 도시인의 관점에서 사회학적 사고로 비판하며 도시를 보는 견해와 도시에 대한 해석 및 도시를 창의롭게 구성하는 방법에 관하여 고민하는 연구자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경제적, 정치적 가치로 대표되는 사회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해 건축보다 직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어바니즘을 연구하는 군락으로 구분된다(임동원, 2010). 어바니즘의 학문적 영역은 건축 조정 토목 등의 물리적 설계 영역과 지리학을 다리삼아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를 다루는 인문지리학자 등의 이론적 가치창조 영역이 모두 포함되는데, 루이스 워스, 루이스 멍포드, 크리스토퍼 화이트, 케빈 린치, 제인 제이콥스(물론 지리학자는 아니지만 어바니즘의 담론상에서 제이콥스의 위치와 영향은 매우 지대하여 사회이론과 도시 연구에 있어 꼭 포함시키고 있다), 앙리 르페브르, 마뉴엘 카스텔, 에벤에젤 하워드, 데이비드 하비, 에드워드 소자, 사스케아 샤센 등이 도시연구가(urbanist) 군에 포함된다.
- 2) 아테네 현장(1933), 마추픽추 현장(1977), 메가리드 현장(1994), 뉴어바니즘 현장(1996) 등이 대표적이다.
- 3) 기존의 사고로는 ‘공공’ 주체가 정부와 지자체이고 따라서 이들의 정책대상 영역이 ‘공공 영역’으로 인식되었으나, 제

정문제로 인한 구조개혁과 보다 성숙한 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영역의 담당 주체에 대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 4) 재정적 분야에서 보다 탁월한 민간 기업이 정부의 역할을 포함하여 경제활동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민영이 이익을 추구하기 앞서 사회공헌적 차원에서 기업이미지의 향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좀 더 진지하게 임하며 지역 활성화의 재정적 틀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文 獻

가시리, 1988, 가시리지-가스름, 대동원색인쇄사.

가시리, 2009, 가시리 신문화공간조성사업 기본계획, 가시리 신문화 공간조성 사업추진위원회.

가시리 신문화공간조성추진위원회, 2010, 문화지도 제주 가시리.

가시리, 2010, 가시리문화지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추진 모형.

표선면, 2009,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강만익, 2001,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 2007, 조선시대 김만일 가계 산마장의 입지 환경과 그 유적, 제주마 학술조사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문화예술재단.

곽노완, 2013, “분배정의와 지속가능한 최대의 기본소득,” 시대와 철학, 24(2), 7-29.

_____, 2013, “도시 및 공간 정의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철학사상, 49, 289-310.

나카지마 에리, 김상용 율김, 2009, 영국의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 한울아카데미.

남도영, 2003, 제주도목장사, 한국마사회박물관.

니시카와 요시아키 등 편, 지영환 등 율김, 2006,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사레편), 한울아카데미.

마쓰오 다다스 등, 진영환 등 율김, 2006,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전략편), 한울아카데미.

마쯔나가 야스미쓰, 진영환 역, 2006, 도시계획의 신

- 조류, 한울아카데미.
- 사토 시게루 편, 이왕건 등 옮김, 2011, 마을만들기 시민사업, 국토연구원.
- 새국토연구협의회, 2006, 살고싶은 삶터 함께 만들기, 도서출판 Read and Change.
- 원제무, 2008, 마음으로 읽는 도시, 삶의 공간을 가꾸는 도시계획, 도서출판 조경.
- 이사 아쓰시 등, 2006, 최선주 등 옮김, 시민이 참가하는 마치즈쿠리(커뮤니티 비즈니스판), 한울아카데미.
- 이자원, 2014, “산업화 이후 20세기까지 도시계획상의 환경 인식에 관한 고찰”, 국토지리학회지, 48(4), 493-505.
- _____, 2015, “도시성장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고찰”, 국토지리학회지, 49(2), 187-198.
- 임동원, 2010, 유로피안 어바니즘의 경험, Spacetime.
- 진미윤 외, 2007,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한국주거학회지, 18(1), 103-112.
- 최옥채 등, 2003,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학현사.
- Duany A., and Plater-Zyberk E., 1992, *Town and Town-Making Principle: Since(and Before) Seaside*, Rizzoli, New York.
- _____, Speck J., and Lydon M., 2010, *The Smart Growth Manual*, McGraw Hill.
- Harvey D., 2008, “The right to the city,” *New Left Review*, 53, Sep.-Oct. 2008.
- _____, 2009(revised ed.), *Social Justice and the City*, The Universtiy of Georgia Press.
- Hall K., and Porterfield G., 2001, *Community by Design*, McGraw Hill
- Howard E., 1965, *Gardedn Cities of To-Morrow*(Osborn F.J. ed.), The MIT Press.
- Lyons M., and Simon S., 2005, “Sustainable Urban livelihoods and marketplace social capital: crisis and strategy in petty trade,” *Urban Studeis*, 42(8), 1301-1320.
- Macionis J.J., and Parrillo V.N., 2010(5th ed.), *Cities and Urban Life*, Prentice Hall.
- Malecki E. J., 2002, “Hard and soft networks for urban competitiveness,” *Urban Studies*, 39(5), 929-945.
- Mikoleir A., and Purckhauer M., 2011, *Urban Code: 100 Lessons for Understanding the City*, The MIT Press.
- Mitchell D., 2003, *The Right to the City*, The Guilford Press.
- Roemer J.E., 1998, *Equality of Opportun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Soja E., 2000, *Postmetropolis: Critical Studies of Cities and Regions*, Wiley.
- _____, 2010, *Seeking Spatial Justice*, Universtiy of Minnesota Press.

접 수 2015년 11월 09일
 최종수정 2015년 11월 20일
 게재확정 2015년 11월 27일